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APEC 2025 KOREA

보도시점 2025. 9. 30.(화) 11:00 < 10.1.(수) 조간 > 배포 2025. 9.30.(화)

양자 소부장 국산화 앞당긴다

- 「제3차 양자기술 산업화 포럼」 개최, 양자 소부장 육성방안 논의 -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김정관, 이하 산업부)는 9월 30일(화), 서울 롯데호텔에서 「제3차 양자기술 산업화 포럼」을 개최했다. 이번 포럼은 양자 소부장 생태계 활성화와 공급망 자립을 목표로, 양자컴퓨터 제조사의 소부장 수요와 국내 공급기업 현황을 공유하고 양자 소부장 국산화를 앞당기기 위한 R&D, 실증기반 조성, 표준화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었다. 포럼에는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을 비롯해 소부장 공급·수요기업, 학계, 연구기관 등 산·학·연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.

* 양자기술 산업화 포럼 발족(양자기술 산업활용 촉진을 위한 논의 본격화, 2.8일)
제2차 포럼 개최(양자기술 산업화 정책방향 및 분과별 실행과제 논의, 6.18일)

이번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글로벌 양자컴퓨터 제조사 IBM은 차세대 대규모 내결함성 양자컴퓨터 개발을 위한 공급망 전략과 함께, 극저온·RF 부품·고밀도 커넥터 등 양자 소부장의 기술 사양과 RFI(정보요청서) 발행 계획을 소개하며 국내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 기회를 제시하였다. 파스칼(Pasqal)은 중성원자 기반 양자컴퓨터 산업화 전략과 함께, 광집적 회로·고출력 레이저·진공챔버 등 핵심부품 개발을 위한 협력 및 자체 모듈화 설계, 산업용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하였다. 연세대학교 박성수 교수는 국내 양자 소부장 공급망 분석 결과를 공유하며, 기판·레이저·광학부품 등 국내 기술보유 현황과 표준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.

이어진 종합 토론에는 소재(우리로), 부품(Withwave), 통신장비(코위버), 제어 솔루션(SDT) 등 각 분야 양자 소부장 공급기업 대표들이 패널로 참석하여, ▲국내 양자 공급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산업수요 창출의 필요성, ▲글로벌 양자기술 패권 확보를 위한 핵심 소부장 국산화 방안 등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정책 요구사항을 제언하였다.

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“양자 소부장은 수요와 공급이 긴밀히 연계되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”라며, “극저온, 레이저, 광학, 반도체 기판 등 주요 품목의 국산화를 지원하고, 소부장 수요-공급기업간 협력을 기반으로 실증 환경을 확충하여 우리 기업의 소부장 기술이 조속히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.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산업기술융합정책국 산업기술시장혁신과	책임자	과 장	강규형 (044-203-4540)
		담당자	사무관	김예은 (044-203-4541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APEC 2025 KOREA
10.27.~11.1. 경주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**제3차 「양자기술 산업화 포럼」 개요**

□ 행사 개요

○ (일시/장소) `25. 9. 30.(화), 14:00 ~ 16:00(120분) /
롯데호텔 가넷 스위트(37층, 서울 종로구)

○ (주관) 산업부, KEIT, KIAT, KTL

○ (참석) **산업기술융합정책관**, 양자컴퓨팅 하드웨어 기업, 소부장 기업, 산·학·연 전문가 등

○ (주요내용) ① 양자컴퓨터 소부장 수요·공급기업 현황 발표
② 신속한 양자 소부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등

□ 세부 프로그램

시 간		행사 내용	비 고
14:00~14:05	5′	**모두 발언**	산업기술융합정책관
14:05~14:35	30′	**양자컴퓨팅 제조기업의 소부장 수요현황 발표**	❶IBM 표창희 상무 ❷Pasqal 정희정 전무
14:35~14:50	15′	**국내 양자 소부장기업 현황**	**발표자 및 좌장** 연세대 박성수 교수
14:50~15:30	40′	**종합 패널토론** - 각 업체별 사업현황 발표(3′) - 좌장이 토론 리딩	**패 널** ❶SDT 윤지원 대표 ❷Withwave 한석태 부사장 ❸코위버 이원희 이사 ❹우리로 신동선 본부장
15:30~15:55	25′	**자유 질의응답 및 현장 의견수렴**	참석자 전원
15:55~16:00	5′	**마무리 발언**	산업기술융합정책관